

천태종 한·중·일 교류 확대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천태종이 올해부터 우호교류를 확대하기로 해 아시아 평화와 불교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중국 국청사 조사당 건립이후 관계모색에 관심을 기울여 온 3개국 천태종은 △4월 일본천태종의 한국 천태종 방문 △5월 중국 천태산 지자대사 원적 1400주년 추모법요식 △10월 일본 히에산 한반도 남북통일기원 지자대사 추모법요식의 행사를 통해 이제까지 일반승려 개인차원의 교류에서 각국 종단차원으로 확대된 교류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천태종은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와 부산 삼광사를 방문기로 했다. 일본 천태종 수뇌부의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방문단에는 일본 천태종 종무총장(총무원장) 스기다니기준, 총본산 집행(주지) 고바야시 류조등 6명의 대표가 참가할 예정이며 해외의 구호사업 등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5월에는 중국 천태산 국청사에서 지자대사 원적 1400주년 추모법요식이 한, 중, 일 3국의 종단관계자 및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5년전부터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기획해온 이 행사는 일본 천태종 주관으로 일제의 남경대학살을 참회하는 위령제도 계획하고 있어 아시아 민간의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일본 천태종은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자대사 추모법요식 및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며 한국 천태종 관계자 및 국악관현악단과 극단을 대거 초청할 계획이다. 특히 10월 1일 대법회는 중국 불교협회 조박초회장의 '한반도의 통일 없이는 아시아 평화는 없다'는 제의에 따라 '한반도의



◇스리랑카 난민을 위한 의류 1천8백점을 보시한 국제반아자비회 회원들.

스리랑카 난민에 온정 답지 국제반아자비회 등 의류·성금 전달

불교국가인 스리랑카 난민을 돕는 국경을 넘어선 자비실천운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 국제반아자비회 캐나다지회와 한·스리랑카 불교복지협회가 그곳으로 경제적으로 낙후한 스리랑카에 의류, 학용품, 성금 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

미국 유투에 본부를 둔 반아자비회(회장 양일·화선)의 캐나다 지회(지회장 최광석)는 지난 11일 캐나다내 한국 사찰과 미국 필라 원각사 등에서 수집한 의류 1천8백점을 스리랑카에 기증했다. 이 의류들은 스리랑카 경찰국 주관으로 난민들에게 지급

된다. 국제 반아자비회는 인도 라다 지역에 보낼 의류 6천여점도 수집해 다음달 보낼 계획이다.

또 한·스리랑카 불교복지협회(회장 백홍수)도 94년 1월부터 6차례에 걸쳐 5백60만 원에 달하는 의류 4상자와 의류 35상자를 기증했다.

이들 단체들의 교류와 지원은 스리랑카에서 불교이동복지, 승가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양국간의 불교교류 활성화 등 민간의교사절로서의 역할도 폭넓게 하고 있다.



◇삼중스님으로부터 법복을 수여받고 있는 양동수 법사.

사형수 법사 양동수씨 첫 법회

“부처님 가피로 새 생명 진리 전하는 삶으로 회향”

사형수로 4년, 무기수로 17년을 복역하다가 모범재소자로 출소한 양동수씨(본지 2월7일자 15면)가 지난달 22일 부산 지사(주지 삼중사에서 어머니의 열정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사로서의 첫 법회를 가졌다.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양동수씨는 삼중스님으로부터 법복을 수여받고, 나락(奈落)같은 죽음의 공포를 경험해야 하는 사형수에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법사로서 거듭나 대중앞에 섰다.

“대법원 재판 결과가 원심대로 사형으로 확정되었을 때 저는 어머니께 수의를 한벌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말을 아무 말

씀없이 바라보시더군요. 그렇게 불효막급했던 제가 이 자리에서 법복을 입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피력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고도소 담배밭 옆에 움막을 짓고 3년을 하루같이 항상 첫 번째로 저를 면회한 어머니가 아이들의 죄업을 자신이 조금이라도 씻겠다는 생각으로 인근 동네 청소나 갖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삼중스님께 듣고부터 저는 자신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국청성과 삼중스님의 ‘모친이 자연사할 때까지만 사형집행을 보류해 달라’는 법무부장관 앞으로 낸 탄원서에 합입이 마침내 지난 78년 12월 무기로 감형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양씨는 삼중스님의 지도하에 고도소를 참회와 수행의 장소로 생각하고 불교공부에 더욱더 매진하게 되었다 한다.

양씨는 마산고도소에 수감돼 있던 지난 92년, 어머니가 자신의 면회증과 인감도장, 인경이 든 주머니를 손에 꼭 쥐고 돌아갔다. 양씨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불효에 절망하기도 했으나

아들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법사가 되었다면 좋겠다는 유언을 실천하기 위해 불교통신대학에 수강, 8개월만에 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말한다.

이날 양법사는 “진실된 기도는 자신을 정확하고 남도 정확합니다”라는 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말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진실된 기도는 자신을 정확할 뿐만 아니라 타인도 정확합니다. 따라서 불자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고 일상의 삶에 항상 부처님 법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법회를 마감하면서 수감당시 참회하는 마음으로 쓴 ‘佛’자 두점과 열마전 현대그룹에서 강연한 대가로 받은 강연료를 참석한 최고령 보살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양씨는 어머니의 이같은 지

“진실된 기도는 자신을 정확하고 남도 정확합니다”

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말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진실된 기도는 자신을 정확할 뿐만 아니라 타인도 정확합니다. 따라서 불자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고 일상의 삶에 항상 부처님 법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법회를 마감하면서 수감당시 참회하는 마음으로 쓴 ‘佛’자 두점과 열마전 현대그룹에서 강연한 대가로 받은 강연료를 참석한 최고령 보살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양씨는 어머니의 이같은 지



환경보존 수륙영산재

선암사 강원 육성 후원 손길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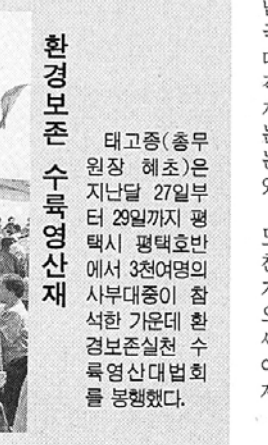
태고종 선암사강원에 대한 태고종도들의 후원이 발을 잇고 있다.

지난달 11일 화성 법흥사(주지 혜성)에서 586컴퓨터와 금일봉을 전달한 데 이어 12일에

원웅종 창종 15년 법회

원웅종(총무원장 일공)은 지난 28일 오전 11시 이태원 캐피탈호텔 대연회에서 극대민안 창종 1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총무원장 일공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불교의 전통을 바로잡고 총화불교의 구현자로 포교활동에 매진했던 15년이었다’고 회고하고 ‘앞으로 원웅무애의 사상을 펴는데 거



환경보존 수륙영산재

태고종(총무원장 혜초)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평택시 평택호반에서 3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보존실천 수륙영산대법회를 봉행했다.

이와관련 천태종 총무원장 도원스님은 “올해는 3개국의 천태종이 교류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논의를 통해 난민, 기아 등 세계구호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아시아 민간의교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천태종 총무원장 도원스님은 “올해는 3개국의 천태종이 교류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논의를 통해 난민, 기아 등 세계구호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아시아 민간의교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일우호 평화기원 대법회

‘중·일우호 평화기원 대법회’가 중국불교협회와 일본의 종교인연합회 공동주최로 지난 달 5일부터 4일간 중국 광둥성에서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중국불교협회가 2차대전 51주년을 맞아 세계 각국의 많은 희생자를 추모하는 평화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열렸다. 또한 중·일 양국 불교계의 우호를 다지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일본 불교도를 초청했다.

美서 45일간 티벳독립위한 행진

워싱턴 D.C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출발하여 뉴욕의 UN 본부 앞까지 4800km를 평화 행진하게 되는 ‘티벳독립을 위한 행진’이 티벳의 독립을 지원하는 많은 참가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달 10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행진은 4월 25일까지 45일간의 일정으로 하루 8시간 정도를 도보한 후 티벳과 중국의 대외정책에 관

한 토론을 벌이게 된다. 이번 행진의 참가자들은 티벳독립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줄과 동시에 중국정부의 비합법적인 관권타락 승인을 거부하고 달라이라마가 인정한 게도움라마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UN이 티벳명정부의 지위와 권익을 보장해 줄 것을 탄원할 계획이다.

모든 길은 교육으로 통한다

모든 길은 교육으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 모든 사상과 가치체계를 교육이 만들어 낸다는 것으로 그만큼 교육제도는 보편적, 합리적, 종합적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다.

다종교국가에서 일부 특정종교의 성직자를 양성기 위해 정부가 성직자양성 전문대학 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누가보다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교육개혁안 내용중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제도 발표로 불거져

나온 교계의 거센 반발이후 수차례에 걸친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백지화하겠다’는 호언은 불자들이 우렁하는 것 같아 입맛이 씁쓸하다.

종교전문대학원 ‘유감’

보고한 종교전문대학원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또 선거를 앞두고 빠져나가기 쉬운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어떠한 명분과 이유론든 다 종교가 헌법으로 인정되는 사회에서 종교의 성직자는 정부가 양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교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 기획 취지가 기독교계의 무차별 목사의 난립에 대한 정화의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특정종교인 기독교계 위상이 강화되는 것은 불보듯 훤히 다다.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목탁소리

김원우 (취재1부 기자)

모든 길은 교육으로 통한다

모든 길은 교육으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 모든 사상과 가치체계를 교육이 만들어 낸다는 것으로 그만큼 교육제도는 보편적, 합리적, 종합적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다.

대중불교 (4월호)

부처님 말씀 ■ 5
독자의 소리 ■ 8

대중불교의 빛을 찾아서 ■ 선소설가 백운 스님 / 18
쇠복소리 ■ 아름다움이 지배하는 세상/ 김중배 / 10
내일을 여는 목소리 ■ 종단의 사각지대, 중무원을 아십니까? / 73
대중불교사 ■ 불교계, 북한수재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 12

특집 ■ 말(言)
신(神)의 어린/ 서정범 / 28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 유동호 / 40
말과 생각/ 김광삼 / 42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 허경 / 44

기획 ■ 개혁사찰 변모상 (1)/ 개혁사찰 무엇이 변하고 있다 / 68
젊은불과 발언대 ■ 수행력이 있어야 밝은 미래 열린다/ 이종현 / 82

불교교리산책 ■ 유식(3)유식의 식(識)/ 성승서 / 15
명상칼럼(3)화합(和合)의 삼요 (三要)/ 용타 / 24
수행으로 가는 길 ■ 순간순간 깨어있는 삶/ 이재열 / 26
선화일편 ■ 백의 관음이 계신 금강산 (金剛山)/ 설산 / 30
신행상담 ■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나요? 상덕 / 81

에세이 보살불교(마지막호) ■ 약사여래의 두 힘시, 일광보살·월광보살/ 이지 / 19
해외불교석학연전(4) ■ 아난다 그루게 (Ananda W, Guruge) / 정희수 / 84
일본을 개혁한 위대한 한국인(8) ■ 소아 대신의 불심은 깊어만 가고/ 홍문기 / 94
불교와 민속(15) ■ 사당과 걸림깨/ 김중대 / 102

칼라화보
월성스님의 동심의 노래(3)/ 월성 / 53
사자산문(7) ■ 사자산문 범홍사/ 김희균·김성철 / 54
한국의 서정 ■ 함평 고막다리/ 김성철 / 60

포교의 현장 ■ 성도절날 거리에서 꽃양양 윤린 연화정사/ 65
환생의 나라, 티벳 ■ 라싸의 마지막 날, 마지막 밤/ 김선정 / 90
수행길의 이면 도반/ 마지막회 ■ 사람에게 무한한 애정으로부터/ 효민 / 98
포포당 일기 ■ 방생도 유행에 맞추어/ 원국 / 62

함께 이루는 청정국토 ■ 자은것이 아름답다/ 성낙진 / 104
오늘을 사는 불자들 ■ 추신회/한인수/이남재/ 노숙이 / 82
봉주우르, 배삼입니다 ■ 잠시 귀국해서/ 지옥 / 104
컴퓨터 배우기 하나, 둘, 셋 ■ 정보의 바다 인터넷으로! / 김은철 / 106
건강 ■ 소아자폐증과 억간산/ 해월 / 105

마을속의 불교현장 ■ 땅끝마을에 울리는 ‘서산대사 진법군교’ / 98
시 ■ 밤성노을/ 김진경 / 61
한 조각 깨달음이 있는 수필 ■ 봄맞이/ 이경향 / 108
You are 독존(獨尊)/ 권경희 / 109
나라 노신(魯迅)과 고양이/ 나희덕 / 111

만화 ■ 임제의원 스님의 깨달음(2)/ 운승문 / 112
신간안내 ■ 117
대중불교 전국소식 ■ 121
감사합니다 / 124

이 향봉 스님 장편 구도 소설

“사람의 길은 진실로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

신바람 나게 살아라! 내승 뚝, 체면치레 뚝!

사람의 길

사람은 누구나 착하다.
사람이 악하게 보이는 것은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열려 있다. 전혀 또한 열려 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기대 말고, 맞고 밀며
넉넉하고 여유있게 당당하게 사는 거다.
인간은 결국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
한번뿐인 인생, 생명은 오직 하나.
연승으로 소모할 수는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다.

*인도성지의 길에서 사람의 길을 찾아
향봉 스님이 던지는 인생의 화두!

전국 서점 풀타임 판매중
값 7,000원 / 345면 / 신국문 양장본

TEL 5290140~5 FAX 5792312